

2 뉴스

여학생에만 투표권 찬성 2/3 안돼 부결

▶ 1면 '총여'에서 이어짐

서울캠 종운위는 확운위 이전에 두 차례의 총여 존폐 및 개편에 대한 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공개 간담회였지만 40여 명의 학생들만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7월 중운위가 총여 존폐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총투표 관련 글을 게시했던 때와 상반된 분위기였다. 종운위는 당시 총여의 구성원이 우리학교의 여학생이기에 총여의 존폐 여부를 여학생 총투표로 결정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댓글과 학교 익명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공론장에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미미했다.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다행의 과제은(국어국문학 2019) 위원장은 “익명의 공간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에 비해 실질적인 힘을 지닌 공개 간담회에서 의견을 말해주는 학우들이 적었다”며 “총여 존폐와 투표 방식에 대해 학우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의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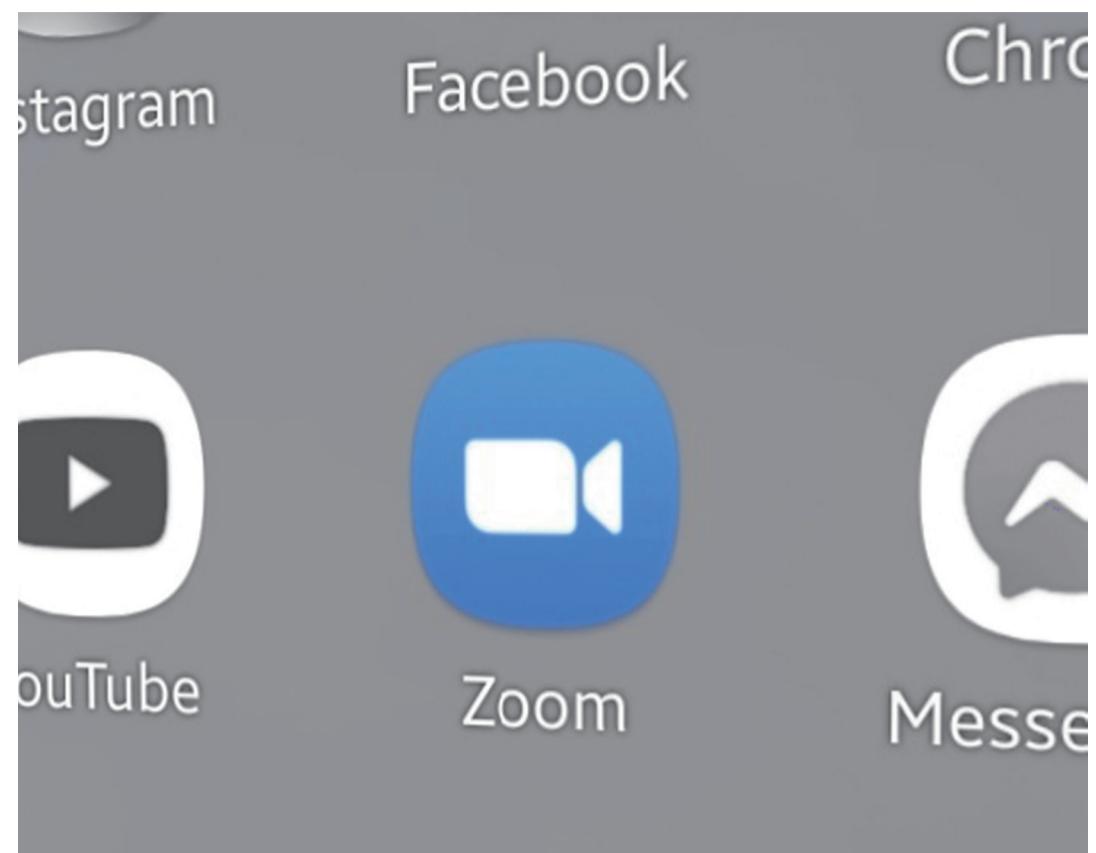
두 차례의 공개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어려웠다. 공개 간담회에 참여했던 A 씨는 “총여는 절대 상태이지만 총여의 회원은 여전히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총여의 지속성을 묻는 것이 맞다”

며 총여 투표의 유권자를 여학생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B 씨는 “총투표 혹은 총여학생투표에 대한 문제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긴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총여를 비롯해 대학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우들이 해당 사안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두 차례의 공개 간담회에서 총여의 해산 투표 방식을 비롯해 대안 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도 오갔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공개 간담회가 진행된 이후, 충분한 숙의 기간을 거쳐 진행된 4차 확운위였지만 의견 통합을 이루진 못했다. 특히, 안건 의결 과정에서 투표 인원의 30% 이상이 기권표를 던졌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다수의 기권표가 나왔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추가적인 공론장 개최는 없을 예정”이라며 “이번 확운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종운위와 확운위 등의 회의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안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남 회장은 “총여와 관련해 공론장을 형성했다는 것은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건을 수정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캠 총여는 2017년 ‘우리

사이’를 끝으로 4년째 절위 상태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로고

(사진=김경민 기자)

줌(Zoom) 유료 전환 보류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이 8월로 예정됐던 유료화 전환을 올해 말까지 보류한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들은 별도 비용 없이 비대면 회의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은 교육용 계정에 대한 무료 혜택을 오

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줌은 교육용 계정에 대한 무료 혜택을 7월 31일까지만 제공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줌이 유료화를 보류한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이다. 줌은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교육용 계정에 무료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초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는 등 교육이 마비돼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백신 보급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무료혜택은 중지될 예정이었으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 연장이 결정 됐다.

줌이 유료화 전환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했지만 이용 방법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도메인을 통해 줌에 가입할 경우 기존처럼 시간제한 없이 무료로 줌 화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다.

줌을 통해 비대면 스터디나 조별 활동 등을 하던 학생들은 올해 말까지 화상회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한숨 돌리게 됐다. 러시아어학과에 재학 중인 A 씨는 “줌이 유료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타 플랫폼을 사용해봤지만 기능이 익숙지 않아 스터디 흐름이 끊겨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줌 유료화 전환이 연기되면 기존 방식대로 줌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감을 드러냈다.

2021-2학기
미래교수전략
II-(1)

제목: 비대면 수업 자료 제작
강사: 문택주

세부 내용

차시	차시명	시간
1	폰을 웹캠으로 활용하고, 화면녹화 쉽게 하기	32분
2	스마트폰 화면 녹화와 PC미라링	27분
3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와 PDF문서 편집하기	25분
4	원도우10 기본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편집하기	23분
5	온라인 수업에 최적화된 파워포인트의 부가 기능 알아보기	29분
6	온라인 협업 수업에 특화된 구글 문서 3인방 알아보기	30분

신청기간 8월 17일(화) ~ 9월 10일(금)

수강기간 신청 다음날 ~ 9월 17일(금)

수강방법 및 유의사항

가) e-campus 로그인 및 초대 수락 후, [2021-2] 미래교수전략 II-(1) 수강
나) 6개 차시를 모두 수강하신 경우에 한해 교육업적점수 10점 부여
다) 참여확인서는 특강 수강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 가능
라) 본 특강은 2021-1학기에 진행된 미래교수전략 II-(1)과 동일한 특강임

